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The Current Status of the Old Documents Seen through Prefaces and Epilogues and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refaces and Epilogues Data Information System

姜 順 愛(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6. 실전 고문헌의 서지요소와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 |
| 2.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의 의미 | 7.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
| 3. 서·발문 수록 문헌의 현황과 정보 | 8. 결 론 |
| 4. 서·발문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 현황 | <참고문헌> |
| 5.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정보 및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 | |

< 초 록 >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고문헌의 영인자료와 각 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대상으로 서·발문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지식정보학적 연구자원의 구축을 목표로 1차 사업을 완성하여 3개의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2차 사업은 실전 고문헌의 서·발문 자료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공동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업의 서지학적 탐도와 DB구축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의 의미는 그 유형과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문화 예술사의 접근, 사상사적 접근, 인물사적 접근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특히 출판 문화사적인 접근은 서적의 편찬, 간행 및 유통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서·발문 수록 문헌은 영인자료에 실린 것은 1,054종 8,413건이었고, 각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에 실린 서·발문 자료에서 조사된 것이 396종 1,591건이었다. 영인자료와 각 도서관자료에 실린 서·발문은 도합 1,450종 10,004건으로 파악되었다.

서·발문의 저작자는 2,057명이었고, 저작 시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이 가장 많았다. 동일한 고문헌을 대상으로 작성된 서·발문은 집부와 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건수를 작성한 사람은 하경진과 기우만이였다. 차후 한 저자가 작성한 서발문의 성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서·발문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실전 고문헌의 서·발문은 10,004건 중 3,694건이었다. 이중 확인된 2,957종의 저작자 2,536명의 성명이 확인되었고,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호나 자 등이 확인되었다. 서·발문의 편찬시기는 17~19세기에 집중되고 있고, 서발문을 통해 판본이 확인된 것은 69종이었으며 주제별로는 사부와 집부가 많았다.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2008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한국문학연구소 학술대회”(2008. 10. 1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9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9일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는 고문헌의 편찬·간행 사실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한 기존 고서 목록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고, 지적 계보의 공식적·통시적 조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한국 실전 고문헌의 실상 파악을 통한 전적 문헌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하고, 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要語: 서·발문, 지식계보학적 연구자원,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ABSTRACT

Prefaces and epilogues take a large portion of the old literature in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at Korea University has completed the first project, with an aim to establish a knowledge-genealogical research resource, and produced three final reports. The subjects of this project are the prefaces and epilogues extracted from the photographic editions of the old documents as well as the old documents held in selected libraries and institutions. The aim of the second project is to complete a compilation of the prefaces and epilogues of the nonexistent old documents.

In this study, the co-researcher of this project presents the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and database establishment. The meaning of the prefaces and epilogues can be found through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culture-art historical approach, ideological approach and historic-figure approach. The publication-culture approach, in particular, offers the detailed facts regarding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old documents.

For this project, a total of 1,045 kinds and 8,413 articles of prefaces and epilogues were taken from photographic editions, and 396 kinds and 1,591 articles were from the old documents held in various libraries. They amount to a total of 1,450 kinds and 1,591 articles.

The authors of those prefaces and epilogues were in all 2,057 persons and the period of authorship falls mostly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 prefaces and epilogues written for the same old documents densely belonged to 集部(Jip-bu) and 史部(Sa-bu) and Ha Gyeom-Jin and Gi Wu-Man turned out to be the most productive writers. It is expected that once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faces and epilogues by one author is complete, new prefaces and epilogues could be found more easily.

Out of 10,004 articles, a total of 3,694 prefaces and epilogues were from the nonexistent ancient literature. For those articles, 2,536 authors were identified, and some authors were identified through their pen-names. The period of compilation falls largely in the 17th through 19th century. The woodblock printed editions were identified from 69 prefaces and epilogues, and they mostly belonged to 史部(Sa-bu) and 集部(Jip-bu).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refaces and epilogues data inform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it could help modify and supplement comprehensively the existing bibliographies of old documents by providing the specific information about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old documents; it could serve as a base of a contemporary outlook for the intellectual genealogy; it could allow a new recognition of old documents by thoroughly understanding the nonexistent Korean ancient literature; and it could facilitate the release and sharing of the results.

Key words: the prefaces and epilogues, information-genealogical research resource, Korean prefaces and epilogues data information system

1. 서론

고문헌에 들어 있는 서문과 발문은 문화 예술사의 접근, 사상사적 접근, 인물사적 접근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출판문화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판 문화사적인 접근은 서적의 편찬, 간행 및 유통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한국의 고문헌에 실린 서·발문은 10,000여건에 해당된다. 이들 서·발류 자료에 대해서 시대별이나 분류세목별로 기본 자료를 추출하고, 각 자료에 교감·표점·해제 등의 학술적 가공과 DB화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경우는 없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국학기초자료사업의 일환으로 2006부터 2007년에 걸쳐 「한국문집총간」 663종 350책을 비롯한 영인본 고문헌 988종,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연세대 도서관 등에 소장된 필사본 고문헌 462종, 총 1,450종의 고문헌을 조사하여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 1만 여건을 수집·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으로 완성하였다.¹⁾ 또한 서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문헌의 현전 여부를 조사하여,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4천여 종 고문헌 목록을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 목록」으로 작성하였다.²⁾ 2008년도에는 삼국·고려시대에 편찬·간행된 고문헌에 붙인 260건의 서발류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의 교감 및 표점, 개요 및 해제 작성, XML마크업 작성을 진행하여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을 엮었다.³⁾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간에 수집 정리한 자료 중에서 1,450건을 선별하여 원문의 교감과 표점, 해제 및 XML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序跋類 자료 총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 (동연구원, 2007).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I (동연구원, 2007).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 2008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동연구원, 2008).

마크업의 작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 서발류 자료집」으로 출간하고, 아울러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헌의 목록 및 해제 작성 작업은 현전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문헌은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양이 실전(失傳)되었으며, 현전본의 조사만으로 전근대시기 서적의 편찬과 출판 현황을 개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전 고문헌 서발류 자료집」은 과거에 실제로 편찬·간행되었으며 현전하지 않는 고문헌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전적문화의 풍부한 실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의 의미를 살펴보고, 10,000여건의 조사 대상 문헌의 현황과 정보, 서·발문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 현황,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 정보 및 현전본의 서지정보 및 1,800여건의 실전 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서지요소와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며, 한국 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발류를 통해 지식인의 지적 활동과 서적의 간행·유통을 파악하고, 지식인과 서적의 공시적·통시적 영향 관계 및 사회적·문화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 고문헌의 상호 관계와 지성사의 계보를 全觀하는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2.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의 의미

서·발류에는 ‘序·敍·緒·引·跋·序錄·序略·序後·題後·題跋·題辭·跋尾·後序’ 등이 있다. 爾雅 에 의하면, 序는 敍라고 하였다.⁴⁾ 즉 실마리를 풀어내듯 사물의 이치를 조리 있게 서술하는 글이다. 引이나 題詞도 같은 성격의

4) 爾雅注疏, 권1, 제3항 “舒·業·順·敍, 緒也,” 十三經注疏 下冊. 中華書局, 1987.

글이다. 고대에는 대개 책 끝에 위치했으나 蕭統의 「文選」에 이르러 책의 첫머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책 뒤에 붙는 글은 跋이나 後序라 불렀다. 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宋代 歐陽修의 「集古錄」의 발문이 최초이다.⁵⁾ 대상이 되는 책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序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序가 책의 첫머리에 놓이는데 비해 跋은 책 뒤에 놓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책의 장점을 드러낸다는 기본 입장이 같기 때문에 양자는 내용이나 형태를 분별하기 힘들어졌다. ‘서·발’류로 통칭됨이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발은 金石이나 그림에 붙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고증을 주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收藏家나 작품의 流派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발문은 문학비평 및 書誌考證의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는 고문헌에 나타나는 서·발문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서·발문의 학술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문학·예술사적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각종 시문집의 서·발문, 시문선 집류에 붙인 서·발문 및 음악·서법·그림 관련 서·발류 자료에서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조선후기 문장가인 李種徽(1731-1797)가 쓴 「明文奇賞後序」(「修山集」 권1, 「한국문집총간」 247, 296-297면)와 「明文選奇叙」(「修山集」 권2, 「한국문집총간」 247, 315면)를 통해 중국 문장선집의 조선적 수용과 조선후기 문장선집의 편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서문을 모두 이종휘의 문집인 修山集에 들어 있다. 「明文奇賞後序」는 명나라 陳仁錫(?-1634)이 편찬한 「明文奇賞」에 붙인 後序이다. 「明文奇賞」은 명초의 宋濂부터 명말의 袁宏道에 이르기까지 명대 산문가들의 글을 뽑고 여기에 약간의 評을 붙인 것으로, 명나라 天啓 3년(1623)에 목판본 40권으로 간행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明文選奇叙」는 李種徽 자신이 편찬한 명문 선집인 明文選奇에 붙인 서문이다. 明文選奇는 명나라 진인석이 편찬한 「明文奇賞」에 수록된 글 중에서 奇文을 가려 뽑아 2책으로 엮은 것이다. 「明文選奇」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이 서문을 통해 「明文選奇」의 편찬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종휘는 진인석이 편찬한 「明文奇賞」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5) 金英珠, “序·跋 전개 양상의 특징적 국면(1),” 「東方漢文學」 第31輯, 90.

이 중에서 奇文을 가려 뽑아 손수 「明文選奇」 2책을 편찬하고 명나라 문장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⁶⁾ 이종회가 쓴 위 두 편의 글은 18세기 명나라 문학에 대한 조선 문인의 수용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둘째, 사상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경학서, 유가류나 기타 제자백가류 등의 저술에 붙인 서·발문을 통해 조선전기 성리학 관련서들의 편찬 및 성리학의 수용과 확산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陰符經』에 붙인 일련의 서·발문을 통한 사상사적 접근을 할 수 있다. 「陰符經」은 兵家와 道家의 요소가 혼합된 책 이름이다. 찬술자로는 皇帝로부터 太公望, 李筌, 寇謙之 등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朱熹가 「陰符經考異」를 지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부터 儒者들이 더욱 이 책을 중시하였다. 「음부경」에 붙인 서·발문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종이 있다.

<표 1> 「음부경」에 붙인 서·발문의 제목, 저자정보 및 소스문헌정보

서·발문 제목 및 저자 정보				서·발문의 소스정보			
서·발문 제목	서·발문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영인본 서명/소장처	권수/면수
書陰符經後	鄭經世	1563	1633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280
再書陰符經後	鄭經世	1563	1633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280
題陰符經後	韓百謙	1552	1615	韓百謙	久菴遺稿	韓國文集叢刊 59	176
陰符經解序	張維	1587	1638	張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118
谿谷張公陰符經註解序	李植	1584	1647	李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152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韓百謙(1552-1615)의 題後와 鄭經世(1563-1633)의 跋文, 그리고 張維(1587-1638)가 지은 『陰符經解』에 붙인 自序와 張維

6) 「修山集」, 권2, 韓國文集叢刊 247권, 315면, 明文選奇叙.
 “明文奇賞者。皇明太史陳仁錫氏所選也。萬曆以上諸君子之文。無不入焉。而我東黃崗金繼輝上禮部書凡二首。亦在選中。乃崔簡易立之高靈峰而順代撰也。陳氏評曰。東人不知宋文。故有古氣。蓋立之之文。祖左國禰韓柳。而不學歐蘇故云也。余抄其尤奇者爲二冊。曰明文選奇。夫奇者。正之反也。其類爲偏爲窮爲巧爲僻爲險怪…”

의 「陰符經解」에 붙인 李植(1584-1647)의 서문이 있다. 따라서 이 서·발류를 통해 陰符經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다섯 편의 글은 모두 陰符經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韓百謙과 鄭經世는 부정적으로 보았고, 張維는 「陰符經」에 주석을 달았다. 李植은 張維의 이런 작업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이는 張維의 작업이 주자학의 입장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李植은 「陰符經」을 주자가 취한 것은 異端之說에 미혹되지 않고 義理之正으로 절충한 閻丘氏의 작업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인물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實記, 行狀, 遺事 등의 저술에 붙인 서·발문에서 인물의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을 볼 수 있다. 일반 시문집의 서문에서도 인물의 삶과 그에 대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 일례를 보면, 하나는 權近(1352-1409)이 지은 林氏詩軸跋(「陽村集」, 「韓國文集叢刊」 7, 225면)을 통해서 여말선초에 왜적이 침입했을 때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임씨의 존재와, 그녀를 칭송한 시축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임씨는 崔君의 아내로 왜적이 욕을 보이려 하자, 그를 꾸짖고 절개를 지키려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그 고장 문사들이 시문을 지어 임씨를 찬미하고 최군을 위로하였으며, 송공이 그 門閭에 정표하고, 또 傳을 지어 사관에게 알려 절의가 더욱 드러났다. 권근이 成均을 겸임하였을 적에 최군이 박사로 있었는데, 이 시축을 보고 발문을 써 주게 된 것이다.⁷⁾

다른 하나는 深河戰役에 참여한 李民寔에 대한 재평가이다. 紫巖 李民寔(1573-1649)의 紫巖集에 붙인 일련의 서·발문을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7) 「陽村先生文集」, 卷22, 韓國文集叢刊 7, 225면, 林氏詩軸跋.

“完山有林氏之女。崔君之婦。以孝行聞。年尚幼。陷于倭。將汚以無禮。慷慨不屈節。罵賊以死。鄉之文士爲作詩若文。以美林氏而慰崔君。事聞于按部。宋公旣旌其閭。又爲作傳報大史氏。林氏之節益以顯。而崔君之悲可以紓矣。予之兼成均也。崔君爲博士。予始得觀其詩文。凜乎秋霜烈日不足比其潔。峯乎泰山嶠岳不足踰其高。挺然歲寒松栢不足擬其貞。雖古烈女。蔑以加矣。是雖天性之美。亦由有父之教。有夫之賢。素礪節義之致然也。予於是撫卷嘉嘆者久之。”

<표 2> 「紫巖集」에 붙인 서·발문의 제목, 저자정보 및 소스문헌정보

서·발문 제목 및 저자 정보				서·발문의 소스정보			
서·발문 제목	서·발문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영인본 서명/소장처	권수/면수
紫巖集序	李光庭	1674	1756	李民寔	紫巖集	韓國文集叢刊 82	66
紫巖遺集序	李光庭	1674	1756	李光庭	訥隱集	韓國文集叢刊 187	250
紫巖集序	李瀼	1681	1763	李瀼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9	419
紫巖集跋	李瀼	1681	1763	李民寔	紫巖集	韓國文集叢刊 82	63
紫巖集後識	柳升鉉	1680	1746	李民寔	紫巖集	韓國文集叢刊 82	154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민환은 1618년 46세에 後金의 奴酋[누르하치]를 정벌하기 위한 명의 징병 요구에 따라 출병하고 있다. 그는 深河戰役에 都元帥 姜弘立(1560-1627)의 종사관으로 선발되어 참여하였는데, 이듬해 3월 深河의 富車에서 賁胤哥가 이끄는 철기군에 대패하여 포로된 후 1620년 7월까지 17개월 동안 被虜生活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패전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 ‘賣國降賊’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로가 막히는 등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李瀼과 李光庭의 紫巖集 서문, 柳升鉉의 초간본 후지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문집 간행의 주된 이유는 바로 심하전역에서 절의를 버렸다는 세간의 비난을 변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출판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서·발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風騷選」은 朴承任(1517-1586)이 동몽들의 한시 교육을 목적으로 東賢들이 選한 前後風騷集을 가져다가 杜甫, 韓愈, 蘇軾 등의 大家 및 古文眞寶 에 실려 있는 것을 제외하고 鋪敍가 委曲하고 語意가 平穩하며 奇簡僻澁의 혐의가 없는 것을 취해 편찬한 뒤, 집에 있는 목활자 4-5斗를 이용하여 인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⁸⁾ 서문은

8) 「嘯阜先生文集」, 卷3, 韓國文集叢刊 36, 286면, 風騷選序.

“…於是。就東賢所選前後風騷集。除杜, 韓, 蘇大家及眞寶所載外。擇其鋪敍委曲。語意平穩。無奇簡僻澁之疑者。得若干首以爲不遠之則。然而讀者既非一口。謄本難齊。反有不能咸之歎。乃聚而告曰。家有木刻活字四五斗。若用填板描印。則可以日傳萬紙。盍相與勉之…”

嘉靖 紀元 關逢困敦(甲子, 명종 19, 1564)년 작성한 것이다. 조선전기 목활자를 이용한 도서 간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둘째, 世祖(朝鮮)는 後漢의 趙曄이 찬한 吳越春秋」를 위주로 하고 左傳, 國語, 戰國策, 劉向의 『說苑』 등의 서적을 참고하여 빠진 부분은 보충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여 편차를 나누어서 책을 만들고는, 최항 등에게 명하여 교감하고 주해할 것을 명하여 최항과 신숙주 등이 작업을 하여 책을 완성시켰다.⁹⁾ 본서는 단순히 「吳越春秋」를 조선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책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완하고, 주해를 붙이고 체제를 새롭게 하여 간행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 肅宗 45年(1719)에 썼다는 기록이 있는 筆寫本(零本 1책)이 남아있다. 셋째,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丙戌(고종 13, 1221)년에 쓴 「御醫撮要方」 序文에 의하면, 古聖賢이 지은 本草, 千金, 斗門, 聖惠諸方 등이 생명을 구하는 의서로서 중요한 서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종류를 방대한 의서를 뒤져서 처방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採菁撮要하여 위급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國朝에는 茶房에서 집성한 藥方 一部가 있어서 文이 간략하나 효과는 신묘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래되어 거의 없어져버렸으므로 이에 樞密相公 崔宗峻이 印行하고자 하여 고종께 올리니 주상이 허락하여 2권으로 만들고 부록으로 諸方之最要을 더해 繕寫하여 「御醫撮要」라 명하여 西京留守官이 이를 彫印하여 반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9) 「太虛亭文集」, 권1, 韓國文集叢刊 9, 184면, 吳越春秋序.

“上召臣某若曰。予夙好觀史。吳越春秋。亦史家流也。紀當時行事得失之蹟。爲後代鑑。其書有足徵者。予嘗承文宗命。撰歷代兵要。并入吳越事實。然拘體例。唯取切於兵家者摭之。故莫得而詳焉。予恨其疏略。乃就後漢趙曄所撰書爲主。左傳, 國語, 戰國策, 劉向說苑等書。反覆參考。務從詳悉。漏者補之。重者刪之。次其綸貫。正其僞舛。以成一書。庶資博洽。今宜更加讎校。且著注解。於是臣與申叔舟等祇承指授。閱數月就緒以進。賜名曰某書。且命臣序之”。

10) 「東國李相國全集」, 卷21. 韓國文集叢刊 1, 512면, 新集御醫撮要方序.

“夫有生之所重者。身與命而已矣。雖死生壽夭皆關乎天。若因節宣失適。爲疾恙所寇。而無良方妙藥以理之。則其間豈無橫失其命者耶。是古聖賢所以著本草, 千金, 斗門, 聖惠諸方。以營救萬生之命者也。然部秩繁浩。難於省閱。其若寢疾彌留。勢可淹延時日。則謁醫可也。搜諸書求其方。亦可也。至如暴得重病。蒼皇危急。則又何暇謁醫搜書之是爲也。不若採菁撮要。以爲備急之具也。國朝有茶房所集藥方一部。文略

위의 세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출판문화사항과 관련된 서·발문의 제목, 저자정보 및 소스문헌정보

서·발문 제목 및 저자 정보				서·발문의 소스정보			
서·발문 제목	서·발문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영인본 서명/소장처	권수/면수
風騷選序	朴承任	1517	1586	朴承任	風騷選	韓國文集叢刊 36	286
吳越春秋序	崔恒	1409	1474	崔恒	吳越春秋	韓國文集叢刊 9	184
新集御醫撮要方序	李奎報	1168	1241	李奎報	御醫撮要方	韓國文集叢刊 1	512

3. 서·발문 수록 문헌의 현황과 정보

서·발문을 수록하고 있는 고문헌은 먼저 현재 총서 등의 형태나 각 출판사에 서 영인한 자료가 있고, 영인되지 않은 자료로서 국내 각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이 남아 있다. 영인본 고문헌에 실린 서·발문은 1,054종 8,413건이 조사되었고, 각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에 실린 서·발류 자료는 396종 1,591건으로 도합 1,450종 10,004건으로 파악되었다.¹¹⁾ 이들 영인자료와 각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영인 자료

영인자료에는 민족문화추진회가 발간한 「한국문집총간」 663종 350책(민족문화추진회, 1988-2005)과 「한국문집총간속」 606종 150책(완간예정, 2005-2012),

效神。可濟萬命。以歲久脫漏。幾於廢失矣。今樞密相公崔諱宗峻。見而惜之。思欲摹印以廣其傳。以此聞于上。上遂欣然頷可。公於是分爲二卷。又添附諸方之最要者。使人繕寫。名之曰御醫撮要。承制勅送西京留守官彫印。使流播於人間……”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序跋類 자료 총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 (동연구원, 2007).

「이조후기여항문학총서」 5책(71종 10책, 여강출판사, 1991), 「근기실학연원제현집」 36종 6책(대동문화연구원, 2007) 및 기타 영인자료 등이 있는데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집총간」은 한국학 기초자료 확장을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저작된 한국인의 현존문집 4천 여종 중에서 1차로 663종을 선정하여 350책으로 표점하여 영인한 것이다. 저본은 당해문집의 간행시기, 내용, 보존상태 등을 검토하여 자료적 가치가 높은 본을 선정한다는 취지 아래, 원칙적으로 刊本을 대상으로 하고 간본이 없을 경우 稿本이나 寫本도 포함시켰다. 「한국문집총간」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 중의 한 예를 소개하면, 총간에는 고려문집이 제1책부터 8책까지 46종이 실려 있다. 그런데 「고려명현집」(대동문화연구원, 1986)에 실린 29종중 李仁老의 「破閑集」, 崔滋의 「補閑集」, 崔瀼의 「東人之文」 四六이 총간에는 빠져 있다. 같은 문집의 경우에도 양 총서에 실린 문집의 저본이 같지 않고, 같은 저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문집이 「고려명현집」에는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총간에 모두 제외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총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서 영인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문집총간속」은 현재 「한국문집총간」에 이어 2차로 600여종 150책을 목표로 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50책까지 간행되었다. 본 총서는 刊本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寫本 형태로 존재하고 미처 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선후기 문인 학자들의 문집이 누락되었다. 또한 刊本보다 稿本이 더 善本인 경우가 있는데 刊本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善本으로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셋째, 「이조후기여항문학총서」는 이른바 여항문인들의 시문집 71종을 10책으로 영인 출판한 것이다. 여항문인들의 경우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후기에 문학·예술의 한 축으로 성장하여 활발한 저작활동을 펼쳤다. 刊本보다는 필사본 형태의 자료가 많다.

넷째, 「근기실학연원제현집」은 17세기 이후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기일원의 실용실증적 학풍을 지닌 23명의 36종의 저작을 망라하여 6책으로 영인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23인 학자들의 36종 저작은 대부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서 초고 필사본이다.

다섯째, 기타 영인 자료는 87종 정도가 된다. 동문선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경우 문집이 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서에는 이 시기 서·발류 자료를 다중 수록하고 있다. 「한국역대문집총서」는 한국의 시문집을 3,010책이라는 거질로 영인한 것이다. 그러나 저본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놓지 않아 전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이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확인된 李滉大의 「松厓集」을 비롯한 18종을 조사하였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출판한 자료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근기실학연원제현집」 이외에도 많은 시문집을 영인 출판하고 있는데, 金龜柱의 「可庵遺稿」, 沈大允의 「沈大允全集」(1~3), 崔漢綺의 「增補明南樓叢書」(1~5) 등이 있다. 한국한문학회 주관으로 편찬되었던 韓國漢文學資料叢書(1~3) 및 洪萬宗의 洪萬宗全集(上~下) 등이 대학사에서 출판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영남 지방 문인학자들의 문집을 國學振興院國學資料叢書로 꾸준히 영인 출판하고 있다. 이 중에서 柳健休의 異學集辨, 金弼衡의 菊牕遺稿 등이 있다. 여강출판사 간행의 金魯銖의 「感宙顧言」, 金駿榮의 「炳菴集」, 李源祚의 「凝窩先生文集」 등이 있다. 아세아문화사 간행의 金永根의 「景晦遺稿」, 李崱의 「鷹巖文集」, 河謙鎭의 「晦峯先生遺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梁周翊의 「无極集」(南原梁氏著存齋宗會所) 처럼 종회에서 편찬한 문집이나, 李鈺, 역주 李鈺全集(1~3)(소명)나 趙熙龍, 역주 趙熙龍全集(1~5)(한길아트)처럼 역주본 형태로 나온 전집 등도 있다.

3.2 각 도서관 소장 자료

국내·외 각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중에서는 고문헌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서·발류 자료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집부에 속하는 필사본 자료이며, 선정시에는 관련 연구 성과와 각 도서관의 고서목록 및 해제집을 참고한 것으로 396종이다.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는 金履陽의 「金履陽文集」를 비롯한 52종으로 「선본해제」 5-8(국립중앙도서관, 2003-2006)의 「어학·문학」 분야를 참고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원문이미지(68,896책 서비스 중)를 위주로 하였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洪敬謨의 「冠巖全書」를 비롯한 210종이며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 집부1·2(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2003), 「문집-일반」을 조사하여 經史子集별로 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徐德潤의 「性理述集」를 비롯한 35종이다. 장서각소장본 중 시문집류에 대한 해제는 거의 없는데, 고도서의 別集類 詩文(어제와 시문이 혼합)1에 573건, 시문2에 1,368건의 시문집류를 대상으로 한 원문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필사본 유일본 위주로 선정하였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沈魯崇의 「孝田散稿」를 비롯한 57종인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1-8책(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평민사, 2004-2006)를 검토하여 조사 자료를 선정하였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은 洪顯周의 「玉壺消夏集」를 비롯한 42종인데 해제집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장서목록 제9집-제14집(고려대학교 도서관, 1973-1979)에 수록된 石洲文庫(한국본 위주, 1,200여책, 선본 37종), 薪菴文庫(동양서적 3,000여책, 고문서 5,000여점), 海史文庫(대한제국 말기에서 광복 전후 외교 자료 중심), 景華堂文庫(한적), 華山文庫(한적 1,800여종, 400여종 선본), 晚松文庫(한적 5,000여종)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제15집 「귀중도서목록」(한적 3,930책)을 많이 참고하였다.

4. 서·발문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 현황

서·발문의 저자와 그의 생몰년은 서·발문의 작성 시기 및 해당 고문헌의 편찬시기를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서·발문 저자 표시는 姓과 名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서·발문 저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號, 字 등의 別名을 대신 기입하였다. 서·발문 저자의 생몰년은 서력으로

기입하였으며, 생년이나 몰년 둘 중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둘 다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생년 부분에 활동시대를 ‘고려 예종 연간’, ‘영조 연간’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서·발문 저자의 생몰년은 서·발문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만큼, 파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밀하게 연대를 추정하여 기입하였다. 수집한 10,004건의 서·발류 자료의 저작자를 조사해 본 결과 총 2,057명이었다. 이 중에서 성명은 확인되지 않고 호나 자 등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2,040명이었으며, 나머지 17명은 확인되는 사항이 없었다. 생년이 서력으로 분명히 밝혀진 경우는 1,334명이었고 몰년이 서력으로 분명한 경우는 1,091명이었다. 서·발문의 작성 시기는 원칙적으로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이다. 그러나 서·발문 작성 시기를 서·발문 내에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 서·발문 저작자의 몰년을 기준으로 서·발문 작성 시기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몰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생년이 분명한 경우는 몰년을 ‘생년+60년’으로 추정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표 4> 몰년을 기준으로 한 서·발문 작성시기, 저자명수, 서·발문건수

연 도	서·발문 저자 명수			서·발문 건수		
	몰년 기준	생년 기준	총계	몰년 기준	생년 기준	총계
1400년 이전 沒 (1340년까지 生)	24	1	25	76	1	77
1500년 이전 沒 (1440년까지 生)	58	1	59	225	2	227
1600년 이전 沒 (1540년까지 生)	89	5	94	310	5	315
1700년 이전 沒 (1640년까지 生)	244	26	270	357	46	403
1800년 이전 沒 (1740년까지 生)	280	76	356	1357	137	1,494
1900년 이전 沒 (1840년까지 生)	299	116	415	1998	198	2,196
1901년 이후 沒 (1841년 이후 生)	105	45	150	2851	74	2,925
총 계	1,099	270	1,369	7,174	463	7,637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표 4>에 의하면, 15세기부터 17세기 중반기까지는 서·발문의 작성이 많지 않다. 서·발문이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시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이며 가장 많이 작성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다. 이 외에도 주요 활동 연도로 추정된 것이 649건의 256명이었다. 나머지 663건 474명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은 한 저자가 작성한 서·발문의 총목록, 동일한 고문헌을 대상으로 작성된 다양한 작가의 서·발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한 예를 들어 <표 5>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주제별, 저자별 서·발문작성건수 및 중복수록자료

주제별 (건수)	저자별	서·발문 작성건수	중복수록 자료
경부 510건	李漢(1681~1763)	家禮附釋序 외 24건 (25건)	12건
	李英裕(정조연간)	經禮類編序 외 16건 (17건)	
	成海應(1760~1839)	記女誠總敍 외 13건 (14건)	
	丁若鏞(1762~1836)	羅氏兪家禮輯語序의 13건 (14건)	
	宋時烈(1607~1689)	家禮諺解跋 외 11건 (12건)	
	李秉休	家禮圖跋 외 8건 (9건)	
	田愚(1841~1922)	敬題女四書後 외 8건 (9건)	
	正祖(1752~1800)	禮疑類輯序 외 8건 (9건)	
	許傳(1797~1886)	家藏孝經後識 외 8건 (9건)	
李度中	家禮或問序 외 6건 (7건)		
사부 2,115건	河謙鎭(1870~1946)	姜氏三綱錄序 외 67건 (68건)	21건
	奇宇萬(1846~1916)	慶州李氏金石錄序의 39건 (40건)	
	金鑣(1766~1822)	題坎宮日記卷後 외 39건 (40건)	
	李源祚(1792~1872)	光山李氏兩世四賢行錄後敍의 35건 (36건)	
	睦萬中(1727~1810)	杆城鄉校金朴五公實記後敍의 33건 (34건)	
	柳永善(1893~1961)	艮齋先生年譜跋 외 29건 (30건)	
	正祖(1752~1800)	顧誤引 외 28건 (29건)	
	郭鍾錫(1846~1919)	綱目類選序 외 23건 (24건)	
	李家煥(1742~1801)	開城王氏族譜序 외 23건 (24건)	
宋秉璿(1836~1905)	箕子誌跋 외 22건 (23건)		

주제별 (건수)	저자별	서·발문 작성건수	중복수록 자료
자부 920건	洪敬謨(1774~1851)	國朝御墨帖引 외 22건 (23건)	20건
	李瀾(1681~1763)	近思錄疾書序 외 21건 (22건)	
	洪奭周(1774~1842)	管子精言跋 외 16건 (17건)	
	黃德吉(1750~1827)	道學原流纂言續後敍 외 16건 (17건)	
	權近(1352~1409)	達空首座問答法語序 외 14건 (15건)	
	李英裕(정조연간)	高皇帝御筆跋 외 14건 (15건)	
	正祖(1752~1800)	監妓引 외 13건 (14건)	
	李用休(1708~1782)	建州女眞考跋 외 12건 (13건)	
	崔漢綺(1803~1879)	講官論序 외 12건 (13건)	
宋時烈(1607~1689)	救荒撮要序 외 11건 (12건)		
집부 6,104건	河謙鎭(1870~1946)	可川集跋 외 134건 (135건)	254건
	奇宇萬(1846~1916)	良霞散稿序 외 119건 (120건)	
	宋時烈(1607~1689)	葛川集序 외 94건 (95건)	
	郭鍾錫(1846~1919)	儉巖詩集序 외 82건 (83건)	
	奇正鎭(1798~1879)	健齋先生遺集序 외 77건 (78건)	
	宋秉璿(1836~1905)	景陽齋朴公太古遺稿序외 72건 (73건)	
	丁範祖(1723~1801)	良翁集序 외 70건 (71건)	
	金鑣(1766~1822)	網錦小賦 외 69건 (70건)	
	許傳(1797~1886)	孤村集序 외 65건 (66건)	
柳致明(1777~1861)	光山世稿序 외 61건 (62건)		

<표 5>에 의하면, 서·발문은 집부와 사부에 집중되어 있고, 자부와 경부는 비례적으로 적다. 서·발문 작성의 저작자를 건수가 많은 순으로 대별하면, 집부와 사부가 많고 경부와 자부가 역시 비례적으로 적다. 서·발문을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은 河謙鎭(1870-1946)이며 사부 68건, 집부 135건이다. 다음은 奇宇萬이 사부 40건, 집부 120건을 저술하였다. 세 주제분야에 관계된 사람은 정조가 경부 9건, 사부 29건, 및 자부 13건이고, 송시열은 경부 12건, 자부 12건, 및 집부 95건이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자별로 작성한 서·발문의 성격과 동일한 문헌을 대상으로 작성한 여러 저자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 저자가 작성한 서·발문 총량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아니라, 본인의 문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발문을 새롭게 찾아낼 수도 있다. 許筠(1569-1618)은 본인이 편찬한 許蘭雪軒(1563-1589)의 「蘭雪軒詩集」에 「蘭雪軒詩集跋」을 썼고, 그의 스승이었던 蓀谷 李達(1539-1612)의 문집인 「蓀谷集」에 「蓀谷集序」를 쓰기도 했으며, 許禎(1563-1640)의 「水色集」에 「水色集序」를 썼다. 이 세 편의 서·발문은 허균의 문학사상을 연구하는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허균의 문집인 「惺所覆韻稿」(「한국문집총간」 74)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 「蘭雪軒詩集」(「한국문집총간」 67, 22면), 蓀谷集 (「한국문집총간」 61, 3면), 「水色集」(「한국문집총간」 69, 3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서·발문 저자’로 정렬하였을 경우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서·발문을 찾아낼 수도 있다.

5.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 정보 및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정보 및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를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표 6 참조). 서지사항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국립중앙도서관, 2000)을 준수하였다. 다만 고문헌 저작자의 표시 방법이나 생몰년 기입 방법은 위의 ‘서·발문 저자와 생몰년’ 기입 방법을 따랐다. 또한 판사항의 경우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石板本’, ‘筆寫本’ 등의 板種과 初刊, 重刊, 校訂 등의 板次를 구별했다.

<표 6>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정보 및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정보 및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											
본서명	저작자	생년	몰년	판사항 (판종)	판사항 (판차)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권책	소장처	참고사항

먼저 해당 고문헌의 현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목록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기에 없는 경우는 각 대학 도서관 목록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고문헌이 현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전 문헌의 서지정보를 기입하였다. 해당 자료가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장처(약호를 사용)에 ‘국중’, ‘규장각’, ‘장서각’ 등과 같이 대표적인 공립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1곳 이상 기입하였다. 다만 국내 공사립 도서관의 고서 목록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지 사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해당 고문헌이 현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문헌의 편찬 및 간행 사항을 파악하여 기입하였다. 실전 고문헌의 경우 소장처는 당연히 공란으로 남겨지는 것이며, 본 자료를 ‘소장처’로 정렬하면 실전 고문헌의 현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지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나, 현전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특이사항(원전이미지 웹 서비스 여부, 해당 도서관 소장목록의 오류 등)을 ‘참고사항’에 기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서지사항에 대한 기술을 표준화해서 서지 레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을 토대로 한국의 현전고문헌과 실전 고문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부분류에 따라 나눈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의 현전 고문헌과 실전 고문헌의 현황

사부분류	현전하는 고문헌		현전하지 않는 고문헌		총 계	
	종수	서·발문 건수	종수	서·발문 건수	종수	서·발문 건수
경부	201	297	220	227	421	524
사부	546	854	1,166	1,293	1,712	2,147
자부	310	453	466	494	776	947
집부	2,029	4,405	1,842	1,981	3,871	6,386
총계	3,086	6,009	3,694	3,995	6,780	10,004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총 6,780종의 고문헌 중에서 3,694종의 고문헌이 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전 여부의 조사는 국내 공사립 도서관의 고서 목록과 대비를 통해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간혹 해외 소장 고문헌 목록집이나 개인 소장 고문헌에 포함되어 현전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완 작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6. 실전 고문헌의 서지요소와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

6.1 실전 고문헌의 서지요소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3,694종의 고문헌에 대한 목록을 먼저 ‘사부분류’에 따라 나누고, 실전 고문헌 목록을 ‘대표서명-본서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였는데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실전 고문헌의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사항과 관련 서·발문 정보의 서지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표 8>로 작성하고 그 중요요소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실전 고문헌의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사항과 관련 서·발문 정보

대표서명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사항								관련 서·발문 정보							참고사항			
	본서명	저작자	생년	몰년	판사항(판중)	판사항(판차)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권책수	서·발문제목	서·발문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영인본/소장처	권수/면수

1) 대표서명은 동일한 고문헌 내지 같은 계열에 있는 고문헌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卞季良이 쓴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은 「사서오경」과 「성리대전」에 붙인

발문인데, 본서는 명나라 태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서 목판으로 번각한 것이다. 한편 周世鵬의 新刊性理節要序는 金正國이 편한 「性理節要」에 붙인 서문으로 김정국이 「성리대전」에서 핵심을 뽑아 재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비록 변계량의 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리대전’과 주세붕의 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리절요’는 다른 책이지만, 중국책의 번각이나 조선 조 재편집본의 간행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대표서명을 ‘性理大全’으로 부여하여 함께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2) 서·발문에 나타난 서지사항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국립중앙도서관, 2000)을 준수하였다. 다만 서·발문에 나타난 고문헌의 저작자와 이에 붙인 서·발문의 저작자 생몰년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판사항의 경우 ‘木板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石板本’, ‘筆寫本’ 등의 板種과 初刊, 重刊, 校訂 등의 版次를 구별하였다. 저작자 표시는 성과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서·발문 저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號, 字 등의 別名을 대신 기입하였다. 저작자의 생몰년은 서력으로 기입하였으며, 생년이나 몰년 둘 중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둘 다 불분명할 경우에는 생년 부분에 활동 시대를 ‘고려 예종 연간’, ‘영조 연간’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3) 관련 서·발문 정보는 해당 고문헌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발문의 정보 및 그 소스 정보를 함께 수록해 놓은 것이다. ‘대표서명-본서명’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동일 고문헌이나 같은 계열의 고문헌에 붙인 서·발문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서·발문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서·발문의 저작 시기에 따라 배열하였다. 서·발문의 저작 시기는 서·발문 저자의 몰년을 기준으로 저작시기를 판정하였다.

4) 참고 사항은 해당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문헌의 편찬, 간행,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사항에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다. 또한 국내 공사립 도서관의 고서목록에 비슷한 책이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기입해 두어, 향후 동일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6.2 실전 고문헌의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을 토대로 실전 고문헌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자 및 편찬시기 현황을 보면, 실전 고문헌 총 3,694종 가운데 2,957종의 저작자 2,536명의 성명이 확인되었고,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호나 자 등은 확인하였다. 나머지 737종에 대한 저작자 확인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 생년으로 서력이 분명히 밝혀진 경우는 1,014명이고 몰년으로 서력이 분명히 밝혀진 경우는 928명이었다. 해당 문헌의 편찬 및 간행 시기는 서·발문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당 문헌의 저작자 몰년을 기준으로 편찬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몰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생년이 분명한 경우는 몰년을 ‘생년+60년’으로 추정하여 통계를 낸 것인데 편찬시기는 14~15세기는 양이 적고, 16세기부터 양이 증가하여 17~19세기까지 집중되고 있으며, 20세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몰년을 기준으로 한 실전 고문헌의 저작 및 편찬 시기

연 도	저작 및 편찬 시기		
	몰년 기준	생년 기준	총계
1400년 이전 沒(1340년까지 生)	32	0	32
1500년 이전 沒(1440년까지 生)	58	0	58
1600년 이전 沒(1540년까지 生)	105	5	110
1700년 이전 沒(1640년까지 生)	294	19	313
1800년 이전 沒(1740년까지 生)	402	69	471
1900년 이전 沒(1840년까지 生)	364	15	379
1901년 이후 沒(1841년 이후 生)	71	9	80
총 계	1,326	117	1,443

2) 판본 현황의 경우는 서·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다음 단계에서는 실물조사를 겸비해야 한다. 전체 3,694종 중에서 서·발문을

통해 판본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63종에 불과하다. 15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필사본이다.

3) 주제별 현황을 보면, 경부 220종, 사부 1,166종, 자부 466종, 집부 1,842종이다. 사부와 집부가 많고, 경부가 자부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각 자료의 더 세분화된 주제를 <표 10>으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경사자집의 세부 류별 주제 및 종수

구분	세부 주제 및 종수														총계	
경부 (류별)	總經	易	書	詩	禮	春秋	孝經	四書	小學						220	
	7	28	9	4	72	16	6	24	54							
사부 (류별)	正史	編年	別史	雜史	史表	傳記	系譜	詔令奏議	職官	政法	金石	地理	書誌	抄史	產業	1,166
	4	14	18	147	5	430	156	7	4	53	8	281	22	16	1	
자부 (류별)	總子	儒家	道家	釋家	兵家	農家	醫家	天文算法	術數	藝術	譜錄 正音 譯學 雜家	類書	西學 隨錄 基督教 法家		466	
	2	192	20	22	22	20	37	13	4	112	6	10	6			
집부 (류별)	楚辭	總集		別集	簡牘	詩文評	詞曲 小說	隨筆	雜著							1,842
	2	440		1,311	32	11	11	22	13							

7.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¹²⁾ 구축의 의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서·발문의 목록시스템의 1단계 결과물은 2007년에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과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였고, 2008년에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

12) 이 시스템의 이름은 이 논문에서 붙인 가칭이다. 추후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고려시대편)』을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실전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지식계보학적 연구자원이 구축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문헌의 편찬·간행 사실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한 기존 고서 목록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

서·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문헌을 국내 각 공사립 도서관의 고문헌 목록과 대비하여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왕에 각 공사립 기관이나 각 대학 및 연구소별로 진행시켜 온 현전본 고문헌의 목록화 작업이나 해제 작업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국내외 각 공사립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 중에는 편찬자, 발행사항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은 기존의 고서 목록이나 해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百選詩」(필사본 6책)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이다. 권두에 서문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와 편찬 시기는 알 수 없다. 목록에는 저작사항에 ‘王勃(唐)等纂’라고 되어 있고, 간사지·간사자·간사년은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安鼎福(1712-1791)의 「順菴集」권18(「한국문집총간」 230, 160-161면)에 수록되어 있는 「百選詩序」와 李獻慶(1719-1791)의 「艮翁集」권 19(「한국문집총간」 234, 412-413면)에 수록되어 있는 「順庵安君百選詩序」를 통해 백선시의 편자와 발행사항 등을 알 수 있다. 즉 백선시의 편자는 안정복이며, 그의 서문이 계미년(癸未年, 1763년, 영조39)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1763년 즈음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서·발문을 통해 목록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기타 발행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다.

2) 지적 계보의 공시적·통시적 조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를 ‘대표서명’으로 정렬할 경우, 동일한 고문헌 내지 성격이 비슷한 고문헌에 붙인 서·발문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고문헌에 대한 다양한 시대 여러 작가들이 작성한 서·발문을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이 문헌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입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서·발문을 통해 한국 지적 계보의 공시적·통시적 조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된다. 본서명 '海東異蹟'으로 정렬할 경우, 관련 서·발문으로 鄭斗卿(1597-1673)의 「海東異蹟跋」(「洪萬宗全集」상, 125면), 宋時烈(1607-1689)의 「海東異蹟跋」(「宋子大全」권146, 「한국문집총간」113, 156면), 黃胤錫(1729-1791)의 「題海東異蹟後」(「頤齋遺藁」권13, 「한국문집총간」246, 287면) 세 편이 나온다. 「海東異蹟」은 洪萬宗(1643-1725)이 1666년(현종 7) 丹學說話를 수집하여 인물별·시대별로 배열하고 평설을 달아 펴낸 전기집이다. 그런데 다분히 도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정두경은 서문에서 '도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고, 物外의 인물들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한스러워하며 흥만종이 「海東異蹟」을 저술한 의의를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황윤석도 이 책을 屈原의 「遠遊篇」, 주희의 周易參同契考異와 비견하며 높이 평가한다. 반면 송시열은 발문에서 흥만종의 海東異蹟」은 괴이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괴벽한 글이라고 평하며 이단의 서적이라 결론 짓는다. 海東異蹟」과 같은 도가적 서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양한데, 이를 통해 지성사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 실전 고문헌의 실상 파악을 통한 전적 문헌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하다.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을 통해 과거 실제로 편찬·간행되었으면서도 현전하지 않는 고문헌의 현황과 유통 과정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헌의 목록 및 해제 작성 작업은 현전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문헌은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양이 실전되었으며, 현전본의 조사만으로 전근대시기 서적의 편찬과 출판 현황을 개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을 통해서 현전하지 않는 고문헌이지만 그 편찬 및 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 전적문화의 풍부한 실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국 실전 고문헌으로 조선후기에 편찬된 兵書인 「武藝諸譜」가 그 사례에 해당된다. 본서는 현전하지는 않지만, 李頤命(1658-1722)의 「武藝諸譜跋」(「疎齋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72, 266면)을 통해서 편찬사실을 알 수 있다. 본 발문은 1714년 대장군 李基夏의 주도로 간행된 「武藝諸譜 重刊本」에 대한 발문이다. 발문에 따르면, 「武藝諸譜」의 초간본은 임진왜란 당시 창설된 訓局에서 갑오년(1594년) 간행되었는데, 유격장군으로 왔던 駱尙志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본서는 戚繼光(1528-1587)의 「紀效新書」를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駱尙志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진 포수와 살수 중심의 무예서임을 알 수 있다. 정조 연간에 「武藝圖譜通志」를 간행하면서 「武藝諸譜」와 「武藝新譜」 등을 종합하였다¹³⁾는 기록으로 보아, 본서는 조선 군사무예의 초석을 놓은 문헌으로 보인다. 따라서 「武藝諸譜」 중간본에 붙인 이이명의 발문은 조선 후기 병서 편찬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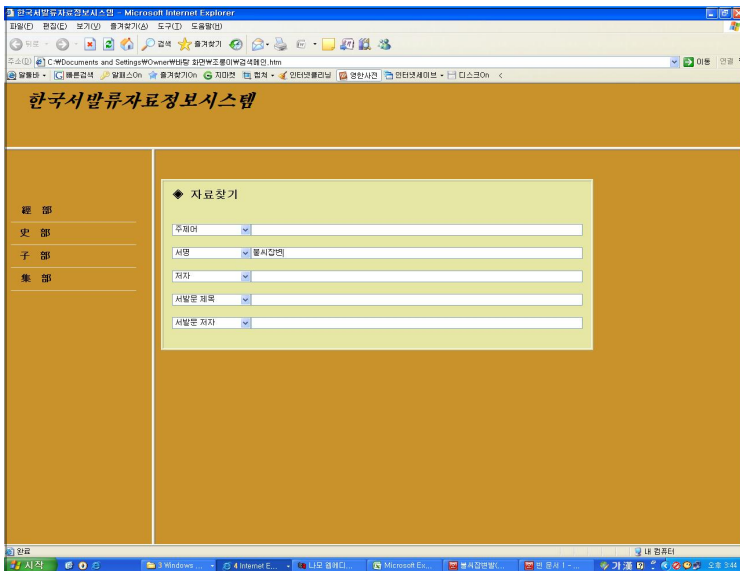
4) 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서·발류 자료 총목록」과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 2종,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 및 향후 완성될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 서발류 자료집」은 우선 엑셀로 정리·작성된다. 이들 자료는 각 항목 별로 정렬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검색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추후의

13) 「疎齋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72, 266면, 武藝諸譜跋,

“...萬曆壬辰。天兵征倭。其中多荆楚奇才善技擊。盖傳戚少保遺法云。遊擊將軍駱尙志。力勸我兵學習砲手殺手之藝。此訓局之所以創設。而此譜之印行於其時也。至今百有餘年。砲手幾遍一國。而短兵之用殆廢。獨訓局有殺手六哨。他軍門廩有數十人。雖以時試藝。譜亡不傳。教師之相口授。多失其舊法。近有人得此譜於金化 縣者。余亟請訓局大將李侯基夏重刻而壽其傳。又欲其校殺手之藝。以復其舊。李侯樂聞而鉞梓。今示以新本。仍請余識其事。顧余未嘗學軍旅。何能論此譜得失。然曾見他軍門操場。賊迫陣前。弓銃難施。砲手荷銃疊出。空手徒喊。益知遊擊之盡教諸藝。訓局之並置殺手。深得五兵相須之意也。李侯今獲舊譜。果能復正其坐作擊刺之法。以壯環衛之勢。庶幾無負天將當日之心矣。嗚呼。此譜。初成於甲午之歲。重刻於再周之今年。疑若有數存焉。固已興感於今昔。而天將之教我兵習藝。何可復見也。遂撫卷流涕而題其後。”

이차적인 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DB로 제작하여 웹서비스하는 방안이다. 본 결과물이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DB로 제작하기 쉽고, 이를 웹서비스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본 결과물의 질적 완성도를 위해 좀 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서·발문 원문 자료와 이에 대한 해제가 함께 제공될 때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가능한 샘플을 제시하면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이렇게 되면, DB를 미리 구축해 놓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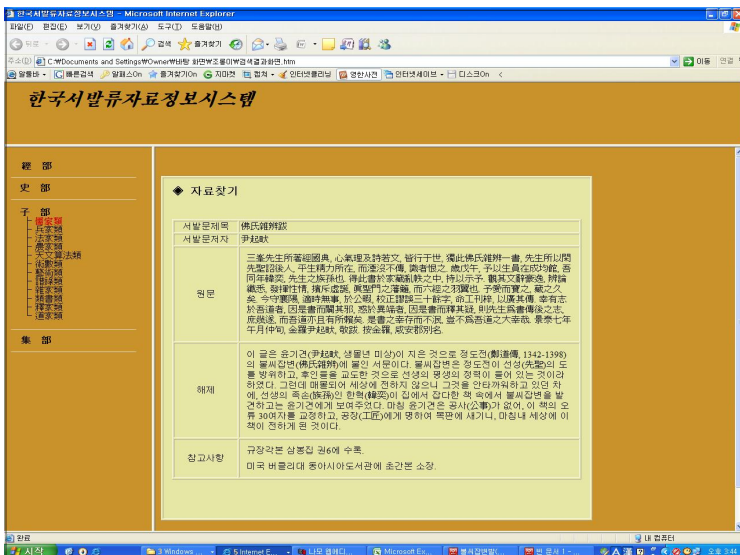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가칭) 검색 화면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그림 2>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가칭) ‘불씨잡변’ 검색 결과



<그림 3>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가칭) ‘尹起軾의 <佛氏雜辨跋>’ 원문 및 해제

둘째, 실전 목록 중에서 주요 고문헌을 추출하여 책자 형태로 간행하는 방안이다. 본 책자에는 실전 고문헌 목록, 서지사항, 관련 서·발문의 원문 및 해제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이 또한 관련 서·발문 원문 자료와 해제가 함께 실릴 때 이용가치가 높은 만큼 다음 단계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때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결 론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문헌에 있어서 서·발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우선, 각종 시문집, 시문선집류에 붙인 서·발문, 및 음악·서법·그림 관련 서·발류 자료를 통해 문학·예술사적 접근이 가능하고, 둘째, 경학서, 유가류나 기타 제자백가류 등의 저술에 붙인 서·발문을 통해 사상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實記, 行狀, 遺事 등의 저술에 붙인 서·발문에서 인물의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인물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서·발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출판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2) 서·발문 수록 문헌의 현황과 정보를 보면, 영인본 고문헌과 각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에 실린 서·발문이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인자료에는 민족문화추진회가 발간한 「한국문집총간」 663종 350책(민족문화추진회, 1988-2005)과 「한국문집총간속」 606종 150책(완간예정, 2005-2012), 「이조후기여향문학총서」 5책(71종 10책, 여강출판사, 1991), 「근기실학연원제현집」 36종 6책(대동문화연구원, 2007) 및 기타 영인자료에 실린 1,054종 8,413건이 조사되었고, 각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에 실린 서·발류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

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396종 1,591건이었다. 영인자료와 각 도서관자료에 실린 서·발문은 도합 1,450종 10,004건으로 파악되었다.

3) 서·발문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 현황을 보면, 수집한 10,004건의 서·발류 자료의 저작자를 조사해 본 결과 총 2,057명이었다. 이 중에서 성명은 확인되지 않고 호나 자 등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2,040명이었으며, 나머지 17명은 확인되는 사항이 없었다. 저작 시기는 15세기부터 17세기 중반기까지는 서·발문의 작성이 많지 않다. 서·발문이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시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이며 가장 많이 작성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다. 이 외에도 주요 활동 연도로 추정된 것이 649건의 256명이었다. 동일한 고문헌을 대상으로 작성된 다양한 작가의 서·발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서·발문은 집부와 사부에 집중되어 있고, 자부와 경부는 비례적으로 적다. 서·발문을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은 河謙鎭(1870~1946)이며 사부 68건, 집부 135건이다, 다음은 奇宇萬이 사부 40건, 집부 120건을 저술하였다. 세 주제분야에 관계된 사람은 정조가 경부 9건, 사부 29건, 및 자부 13건이고, 송시열은 경부 12건, 자부 12건, 및 집부 95건이었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자별로 작성한 서·발문의 성격과 동일한 문헌을 대상으로 작성한 여러 저자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 저자가 작성한 서·발문 총량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문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발문을 새롭게 찾아낼 수도 있다.

4) 실전 고문헌의 서지요소와 저작자 및 편찬·간행시기, 판본별, 주제별 현황을 보면, 실전 고문헌으로 파악된 3,694종을 대상으로 서·발문 정보의 서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저작자는 실전 고문헌 총 3,694종 가운데 2,957종의 저작자 2,536명은 성명이 확인되었고,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호나 자 등이 확인되었다. 편찬시기는 14~15세기는 양이 적고, 16세기부터 양이 증가하여 17~19세기까지 집중되고 있으며, 20세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694종 중에서 서·발문을 통해 판본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63종에 불과하다. 15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필사본이었다. 주제별 현황을 보면, 경부 220종, 사부 1,166종, 자부 466종, 집부 1,842종이다. 사부와 집부가 많고, 경부가 자부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5)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는 첫째, 고문헌의 편찬·간행 사실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한 기존 고서 목록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고, 둘째, 지적 계보의 공시적·통시적 조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셋째, 한국 실전 고문헌의 실상 파악을 통한 전적 문헌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하고, 넷째, 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이 연구는 차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그간에 수집 정리한 자료 중에서 1,450건을 선별하여 원문의 교감과 표점, 해제 및 XML 마크업의 작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 서발류자료집」으로 출간될 것이고, 아울러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DB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므로 추후의 새로운 사실을 통한 서지학적인 탐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序跋類 자료 총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 (동연구원, 200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실전 고문헌 목록 .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I (동연구원, 200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 . 2008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결과물 (동연구원, 2008).
- 金英珠. “序·跋 전개 양상의 특징적 국면(1).” 『東方漢文學』 第31輯. 90. 修山集』. 권2. 韓國文集叢刊 247권. 315면. 明文選奇叙.
- 陽村先生文集』. 卷22. 韓國文集叢刊 7. 225면. 林氏詩軸跋.
- 嘯臯先生文集』. 卷3. 韓國文集叢刊 36. 286면. 風騷選序.
- 太虛亭文集』. 권1. 韓國文集叢刊 9. 184면. 吳越春秋序.
- 東國李相國全集』. 卷21. 韓國文集叢刊 1. 512면. 新集御醫撮要方序.